

한부모가족 부·모의 시간 사용 및 시간부족감 결정요인 분석

양은모*·배호중**

초 록

미성년자녀를 둔 한부모는 자녀양육과 생계유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는 곧 시간활용의 제약과 시간부족감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의 시간활용 양상과 그들이 느끼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구주)의 자녀돌봄시간, 수면시간 및 식사관련 시간 활용과 이들이 체감하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한부모의 하루 평균 시간 사용은 미성년 자녀 돌봄 42.9분, 수면 489.8분(≈8.2시간), 가사노동 71.0분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을 통해 한부모의 수면시간이나 자녀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식사관련 시간이 감소하는 데는 근로시간이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나 식사관련 시간 사용 차이도 확인하였다. 근로시간은 시간부족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의 정도가 낮았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부모 가정이 겪는 구조적 시간 제약을 완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근거로 할 때, 한부모의 시간 사용 양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 수면시간, 자녀돌봄시간, 한부모

* 제1저자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emyang@krihs.re.kr)

** 교신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baseball@kwidimail.re.kr)

I. 서론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자원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시간 사용 양상은 그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반적으로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 생계유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기 때문에, 시간 사용 선택의 제약이나 시간부족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부모의 시간 사용은 개인 및 그 가족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이자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자녀발달, 가족의 안정성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사지원, 돌봄지원서비스 등의 형태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주목받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유형별서비스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여성가족부, 2025), 이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라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이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이어져 왔다(김은지 외, 2018; 배호중 외, 2021). 그리고 최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분석도 이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은 그들의 경제적 취약성이나 복지정책 등 정책 지원 경험의 부재(박복순, 2008; 김진옥, 2010; 송치호·여유진, 2010; 문은영, 2011; 최하영·민혜영, 2020; 이혜정 외, 2021; 성정현, 2022; 정이윤·전미양, 2023), 한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 차별 경험(김오남, 2004; 김유심, 2010; 김진옥, 2010; 오성은·김한성, 2020; 이이나·이창배, 2023; 문화진, 2023; 김정희, 2024), 자녀 양육의 어려움(노영희·김상인, 2016; 성미애, 2020; 장혜원·최하영, 2021; 이래혁, 2023)과 같이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 또는 어려움의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나타내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시간 사용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시간 사용이나 시간부족감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¹⁾과 이로 인한 낮은 소득 수준, 사회적 지원의 부족,

1)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

사회적 돌봄자원 이용의 어려움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역으로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장시간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와 자녀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시간부족은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감소시키고, 가족 간 유대 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 사용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과 그 가족의 삶, 자녀발달을 유추해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다. 예를 들어, 수면시간의 부족은 건강의 적신호를 야기할 수 있고, 식사관련 시간의 부족은 결식이나 부실한 영양 섭취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개인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삶을 살피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시간 사용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미성년자녀의 삶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실제적 사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정도의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인식(perceived time adequacy)이 개인의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Lee et al., 2017) 고려할 때, 한부모가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한부모가족은 혼자 양육과 생계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김은지 외, 2018).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켰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신뢰할만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승인통계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법정조사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시행되면서 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축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부모의 시간활용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일상생활 및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차원의 정책발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부모가 느끼는 시간부족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이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이 증가해서, 일상생활 및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부족감을 느끼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 긴 근로시간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부모의 경우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일상생활 활동(자녀돌봄, 수면, 가정관리, 식사)에 할애하는 시간 양상이 한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부모가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감도 한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부모의 시간 사용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구조적 시간 제약을 완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일상생활 분석의 의의

누구에게나 일상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이다(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1994: 24-25). 따라서 일상은 개인의 삶 그 자체이자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시간 사용 패턴, 생활 방식, 사회적 상호작용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일상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는 ‘시간’이다. 인간의 일상은 시간의 사회성과 일상성이라는 두 속성에 의해 반복되므로 시간활용²⁾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2008: 108). 생활시간을 통한 일상 분석은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개인이 무엇을 하고, 누구와 소통하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는지 질문을 던져준다(정수정, 2018). 따라서 개인의 삶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Mafessoli & Lefebvre, 1994: 정익중·이수진·강희주, 2020: 60에서 재인용).

2) 이들은 일상생활을 연구하기 위한 5가지 접근방식 중 하나로 24시간의 배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이 5가지 접근방식은 ①일상의 전체적 의미가 논의되는 인식론적 고찰, ②하루의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 ③일상생활의 각종 의식(儀式)에 대한 접근 방법, ④사회 전체의 일상적 구조까지 확대하는 접근 방법, ⑤일상의 두드러진 특정한 성격을 인간 존재의 내면적 반성과 결부한 논의로 구분된다(박재환 외, 2008: 27-30).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이며, 축적되지도 않고, 타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서, 시간 사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00). 시간 사용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결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매 순간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고 그것이 개인의 시간 사용을 구성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족과 타인의 영향 속에서 행동(시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다면 자녀돌봄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특성(자녀수, 연령대나 장애여부 등)에 시간 사용은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배우자가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많이 부담하면 본인은 돌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짧게 나타날 것이다. 가족은 생활공동체이기에 기혼자의 시간 사용(time-use)에 미치는 배우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도 근로여부(맞벌이 여부), 통근, 가구 내 가사노동 분담, 자녀돌봄 등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논의하며, 실제 시간배분에 있어 배우자의 상당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배호중, 2015; 허수연·김한성, 2019; 배호중·최철환, 2021; 조보배, 2022).

따라서 한부모가족은 여느 가구와는 다른 생활 패턴과 시간 사용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부모는 자녀 돌봄과 생계유지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시간 활용이 독특하게 나타난다(Bianchi, 2011). 이들은 가족 내에서 생계유지와 자녀돌봄 간 역할분담이 가능한 배우자의 부재로 시간활용 양상에 구조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아울러 배우자와의 적절한 시간배분이 불가능한 만큼 시간을 둘러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의 일상생활(시간) 중,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인 자녀돌봄, 수면, 식사, 가정관리 시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들의 시간부족감에 대해서도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2. 한부모가족의 시간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규모 실태조사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가사시간과 돌봄시간을 살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의 평일 기준 가사시간과 돌봄시간의 평균은 각각 2.4시간이었으며, 일요일은 그보다 조금 긴 3.6시간과 3.7시간으로 나타났다(배호중 외, 2021: 408). 주 평균으로는 가사와 돌봄시간은 각각 2.7

시간이었는데 한부모의 학력이나 한부모가족의 가구구성, 막내자녀의 연령대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배호중 외, 2021: 411).³⁾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30~40대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부·모 간의 생활시간 차이 및 한부모가족의 부와 모간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핀 연구(조영희, 2004)가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 결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는 취업에 관계없이 양부모가족의 모보다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더 적었다. 취업부는 양부모가족의 취업부보다 가정관리시간은 더 많았지만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더 적었다. 그리고 총 노동시간은 한부모가족의 모의 경우가 양부모가족의 부와 모, 한부모가족의 부의 경우보다 많았다.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대체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부·모의 가정관리, 식사준비 및 정리, 가족보살피기 및 여가의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례면접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식생활 수준이 열악하였고, 가사수행에 대한 자아역할인식도가 낮고, 배우자 부재로 인한 상실감으로 생활에의 의욕도 낮아 식사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식사준비 및 정리(가정관리) 시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녀에 대한 몰입도도 낮은 편이었는데, 이중역할로 인한 역할과중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의욕상실과 소외감 등과 관련하여 가족보살피기에 적은 시간이 할애되었을 것으로 풀이하였다(조영희, 2004).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해 한부모가족의 시간 사용 및 시간부족감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 연구(김외숙·박은정, 2018)도 존재한다. 이들은 20~50대에 속한 비농가 한부모가족의 시간을 필수생활시간(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 의무생활시간(노동, 가사노동, 학습), 여가시간(참여봉사, 교제, 미디어, 종교, 문화관광, 스포츠, 기타여가)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활동에 할애한 시간 및 시간부족감에 대해 성별과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 여가시간, 기타여가활동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사노동은 여성이 취업자는 2.2배, 비취업자는 3.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성별 차이는 취업 집단에서 59분, 비취업 집단에

3)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가사시간의 경우 중졸 이하(3.0시간) > 고졸 이하(2.8시간) > 대학 이상(2.5시간) 순으로 길었고, 가구구성에 따라서는 부자가구(2.4시간)에 비해 모자가구(3.0시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돌봄시간의 경우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 이상(2.9시간) > 중졸 이하(2.7시간) > 고졸 이하(2.5시간) 순으로 길었고, 막내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미취학(4.5시간) > 초등학교생(3.1시간) > 중학생 이상(2.1) 순으로 나타났다.

서 117분으로 남성이 더 많으며 그 차이도 비취업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시간부족감은 취업자의 비근무일에서만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김외숙·박은정, 2018).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해 맞벌이가구 부모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취업 한부모의 시간 사용 및 시간부족감, 피곤함, 삶의 만족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있다(노경혜, 2021).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일하는 시간, 가정관리시간, 여가시간이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짧고, 돌봄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간 사용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폈을 때 가구총소득은 가정관리시간, 돌보기 시간, 시간부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여가시간이나 삶의 만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부족의 경우 돌봄시간이나 피곤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성별이나 가구총소득에 따라 생활시간의 사용양상이나 시간부족감에도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해당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뿐 아니라 자녀의 생애주기 등을 감안한 정책이나 한부모의 시간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노경혜, 2021).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해 한부모가족의 여가시간, 시간빈곤 및 시간압박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을 남성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와 비교한 연구(박미진 외, 2022)도 존재한다. 분석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간 사용 양상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에 따른 시간활용에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여가시간, 시간빈곤, 시간부족 인식의 수준이 여성에 비해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여가시간, 시간빈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도 상당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부모가족은 여가시간이 짧았으며, 시간부족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 특히 그 가운데 여성 한부모의 여가시간이 눈에 띄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빈곤의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 한부모는 일과 후 피곤 정도와 삶의 만족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한부모가 경험하는 만성적인 삶의 질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 이외의 차원에서의 지원(예컨대 시간차원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박미진 외, 2022).

한부모의 일상생활 또는 시간 사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핀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 만큼이나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조영희, 2004; 김외숙·박은정, 2018; 노경혜, 2021).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한부모가족의

활동별 시간 사용 총량을 집단별로 단순 비교(예컨대 남성한부모 vs. 여성한부모, 취업한부모 vs. 비취업한부모, 요일 간 비교 등)하는 것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부모에 한정 짓지 않는다면, 기혼여성의 시간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 우선, 기혼취업여성의 시간 사용에 자녀유무, 특히 취학 전 자녀 유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김외숙, 2015; 박건, 2016; 양은모·성경·배호중, 2023). 또한, 배우자의 특성(소득, 직업, 연령 등)도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김영란 외, 2015; 이경희·김근주, 2018; 양은모·성경·배호중, 2023). 이렇게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촘촘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의 시간 사용과 시간빈곤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의 시간 사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특히 한부모의 시간 사용은 본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가구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부모의 시간 사용을 설명함에 있어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의 식사, 수면, 자녀돌봄 등 다양한 활동에 할애한 시간이나 그들이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부모의 시간활용 및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주기로 총 5차례 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응답자)을 대상으로 연속 이틀(48시간)의 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며,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12,435 표본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통계청, 2019).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수집된 시간일지 가운데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면서, 가구주만 존재하고,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한부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가구주’라고 응답한 이들 중 65세 미만⁴⁾인 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시간’, ‘수면시간’, ‘가정관리시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가 계절요인과 요일별 시간활용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총 3회(7월, 9월, 11월)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이들 가운데는 두 번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도 존재한다. 다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일지의 경우 독립된 자료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422개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시간일지를 이용해 분석이 진행되었다.

2. 변수구성

1) 종속변수: 자녀돌봄, 수면, 식사관련, 가사노동시간 및 시간부족감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돌봄, 수면, 식사, 가정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생명 또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이고, 누구나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간의 사용뿐 아니라, 적절한 정도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또한 개인의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또한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돌봄, 수면, 식사관련,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생활시간조사」에서 ‘주행동’으로 집계된 시간의 합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녀돌봄시간은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중 ‘5.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중 ‘52.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와 ‘53.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에 해당하는 활동들에 투입한 시간의 합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수면시간은 ‘수면(111)’과 ‘잠 못 이룸(112)’의 시간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셋째, 식사관련 시간은 ‘식사하기(121)+식사준비(411)+설거지·식후정리(413)’에 해당하는 활동에 할애한 시간의 합, 가정관리 시간은 ‘4. 가정관리’에 해당하는 활동 가운데 본 연구에서 별도로 살핀 ‘식사준비(411)’, ‘설거지·식후정리(413)’에 할애한 시간을 제외한 활동에 대한 시

4) 물론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한부모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65세부터는 『노인복지법』 등에 의거 노인으로 간주되며, 기초연금 수급의 기본요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년제도 등과 맞물려 노동시장에서도 타연령대와 이질적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운데 그보다 적은 연령의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간의 합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⁵⁾. 마지막으로 시간부족감은 “귀하는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4점척도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하여 해당값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 설명변수

한부모가족 부·모의 시간활용과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본인)특성과 가구 및 요일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이혼한부모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이 자녀돌봄, 식사 등 다른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근로시간의 잔여시간에 수면, 가사노동 등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근로시간 또한 응답자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자 시간활용과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1과 0의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연속형의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졸업을 기준으로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밖에 한부모가 된 이유도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원의 유무, 자녀양육비를 비롯해 시간활용 방식에 이르기까지 한부모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정확히 반영할 수는 없는데 한부모가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하기 위해 이혼 여부 변수를 포함하였다. 혼인상태에 대한 질문에 이혼이라고 응답한 경우 1, 미혼 또는 사별을 선택한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시간의 활용과 관련해 한부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요일 등의 특성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 및 요일과 관련한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하였다. 먼저, 가구소득 변수는 「생활시간조사」에서 9가지의 범주형으로 조사된 가구총소득을 보다 간략하게 5가지로 묶어 사용하였는데 한부모가족의 경우 정책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양육비 등 사적이전 소득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총소득

5)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서 ‘식사준비(411)’, ‘설거지·식후정리(413)’은 ‘가정관리’ 시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정관리 시간에 포함시켜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 시간을 별도의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한부모의 식사준비, 설거지 등의 행동은 다인가족 등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식사와 연결될 것으로 판단해 ‘식사관련 행동’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는 '100만 원 미만~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을 구분짓는 더미변수를 생성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원수 변수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의미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시간활용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특히, 가구 내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돌봄과 관련된 시간 활용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취학 자녀 유무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거점유 형태 변수는 응답자의 주거 유형을 반영하는 변수로, '자가', '전세', '기타(월세 및 무상 거주 포함)'로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주거 형태는 경제적 안정성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일 변수는 조사된 요일을 기준으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변수로, 평일(월~금)은 0, 주말(토, 일)은 1로 코딩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족 부·모의 시간활용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된 변수이다. 끝으로, 지역 변수는 한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을 반영하는 변수로, 서울, 광역시, 도(광역시 이외의 지역)로 구분하였다. 이는 대도시 등 지역 간의 생활패턴 및 시간활용 방식, 이용가능한 사회적 돌봄시설 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함시켰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부·모의 시간활용 및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주요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종속변수들(자녀돌봄, 수면, 식사, 가정관리시간 및 시간부족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설명변수들을 이용해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는데 [모형 I]에서는 한부모(본인)의 특성만을 설명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II]는 가구특성 및 요일에 대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각 활동에 대한 시간 사용이나 시간부족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 III]에서는 본인특성과 가구 및 요일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n X_{ni} + \epsilon_i$$

(여기서, Y_i : 종속변수(자녀돌봄시간, 수면시간, 식사관련 시간, 가정관리시간, 시간부족감), β_0 : 절편, β_n : 각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X_n : 설명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ϵ_i : 오차항)

IV. 한부모가족 부/모의 시간활용 및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1. 기술통계분석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211명의 시간일지 422부⁶⁾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들은 미성년자녀 돌봄에 일 평균 42.9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수면시간은 평균 489.8분(≈8.2시간), 가사노동에는 71.0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점척도로 측정(=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한 시간부족감에 대한 평균은 2.94점 수준으로 단순 평균만으로는 ‘③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가까이 위치한다.

시간활용 양상과 시간부족감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는 크게 본인특성과 가구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본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면, 31.3%는 남성(한부모가족의 부)의, 68.7%는 여성(한부모가족의 모)의 시간일지였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45.0세였다. 교육수준은 10.0%는 고졸 미만, 45.0%는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비율은 각각 25.6%와 19.4%였다. 이들의 근로시간⁷⁾은 평균 3.71시간이었다. 현재의 혼인상태를 통해 한부모가 된 사유로는 3/4 이상(77.7%)이 이혼 한부모였으며, 22.3%는 미혼 또는 사별이었다.

6)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행동을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시간일지가 완전히 서로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ID를 가진 한부모에 대해 군집화(clustering)하여 분석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Variance-Covariance Estimation (VCE) 옵션을 사용해 211개의 군집을 형성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7)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터에서의 근무시간(출근~퇴근까지의 시간 등)과는 달리 시간일지를 통해 일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시간을 합산한 값이다. 한편, 근로가 주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일 근로시간이 10분 이상인 시간일지(180부)를 기준으로 평균 근로시간은 6.91시간이었다. 단순히 요일만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평일(247부)은 평균 5.04시간, 주말(175부)은 평균 1.83시간이었다.

〈표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는 %, 빈도)	
종속 변수	미성년자녀 돌봄시간		만 10세 미만 아이 및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시간 ⁸⁾	42.867	71.040
	수면시간		수면(111)+잠 못 이룸(112)	489.810	111.811
	가사노동시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등에 사용한 시간의 합 (단, 식사 및 음식준비 시간은 제외)	71.019	66.165
	식사관련 시간		식사하기(121)+식사준비(411)+ 설거지·식후정리(413)의 합	145.592	64.503
	시간부족감		‘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4점 척도)’으로 역코딩하여 계상	2.943	0.907
본인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31.3%	132
	연령		연령(세)	45.024	7.23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고졸 미만=1, 그 외=0	10.0%	42
		고졸	고졸=1, 그 외=0	45.0%	190
		전문대졸	전문대졸=1, 그 외=0	25.6%	108
		대졸 이상	4년제 대졸 이상=1, 그 외=0	19.4%	82
	근로시간(시간)		‘일’에 대한 시간 중 ‘구직 및 창업활동’, ‘자가소비를 위한 일’을 제외	3.709	3.796
	이혼 한부모 여부		이혼=1, 그 외(미혼, 사별)=0	77.7%	328
가구 및 요일 특성	소득 범주	0~100만원	0~100만원 미만=1, 그 외=0	14.2%	60
		100~200만원	100~200만원 미만=1, 그 외=0	26.1%	110
		200~300만원	200~300만원 미만=1, 그 외=0	27.0%	114
		300~500만원	300~500만원 미만=1, 그 외=0	20.4%	86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1, 그 외=0	12.3%	52
	가구원수		전체 가구원 수(명)	3.005	1.006
	미취학 자녀 유무		미취학가구원 있음=1, 없음=0	15.6%	66
	주거 점유 형태	자가	자가=1, 그 외=0	39.3%	166
		전세	전세=1, 그 외=0	20.9%	88
		기타	월세, 무상=1, 그 외=0	39.8%	168
	조사일(주말여부)		주말=1, 주중=0	41.5%	175
	지역	서울	서울=1, 그 외=0	8.5%	36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1, 그 외=0	35.1%	148
		도	서울 및 광역시 제외=1, 그 외=1	56.4%	238
	분석에 이용한 시간일지의 수				422개

주: () 속의 세 자리 숫자는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행동분류코드.

8) 미성년자녀 돌봄시간은 201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기준으로, ‘신체적 돌보기(511, 521)’, ‘간호하기(512, 522)’,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513, 523)’,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514, 524)’,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활동 하기(515, 525)’,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516, 526)’, ‘기타 돌보기(519, 529)’ 활동에 할애한 시간의 합으로 정의한다.

가구 및 요일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14.2%가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200만원 미만(26.1%)과 200~300만원 미만(27.0%)이 각각 1/4 정도였다. 1/5 정도(20.4%)는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비율은 12.3%였다. 본인을 포함한 평균 가구원 수는 3.0명이었으며, 가구 내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율은 15.6%였다.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39.3%는 자가였으며, 전세는 20.9%를 차지하였다. 39.8%는 월세 또는 무상(관사, 사택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시간일지의 41.5%(175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58.5%(247개)는 평일(월~금)에 조사된 시간일지였다. 가구소재지는 서울이 8.5%였으며, 광역시에 거주 중인 비율은 35.1%였다.

2.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핀 한부모가족 부, 모의 시간활용

1)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여러 가지 활동(시간 사용) 가운데 첫번째로 '미성년자녀 돌봄시간'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의 영향인지, 혹은 개인이 속한 가구 및 외부 요인의 특성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일은 정확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 본인의 특성만을 통제하여 분석하고(=[모형 I]), 가구 및 요일 특성을 분석하고(=[모형 II]), 최종적으로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모형 III]).

우선, 한부모(본인)의 특성만을 분석한 [모형 I]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미성년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다. 학력별로는 (기준변수로 삼은 대졸인 이들에 비해) 고졸 미만에 속한 이들의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전문대졸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돌봄시간이 적었다. 이밖에 여타의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라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미성년자녀 돌봄시간은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및 요일특성만을 설명변수로 삼아 미성년자녀 돌봄시간을 살핀 [모형 II]의 분석결과는 조금 달랐다. 비록 모든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낮은 소득범주에 속해 있을수록 미성년자녀 돌봄 시간은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미성년자녀 돌봄시간이 98.7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주거 점유 형태나 조사일, 지역을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2〉 ‘미성년자녀 돌봄시간(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I] 개인특성만 고려		[모형 II] 가구특성만 고려		[모형 III] 개인 및 가구 고려	
			β	$S.E.$	β	$S.E.$	β	$S.E.$
상수항			211.248***	34.011	30.933**	10.019	157.362***	30.362
본인 특성	성별		5.094	7.218			11.847†	6.635
	연령		-3.604***	0.722			-2.412***	0.612
	교육 수준	고졸 미만	54.510*	21.966			12.152	14.734
		고졸	13.424	8.974			-3.612	7.621
		전문대졸	-16.133*	7.561			-12.119†	6.458
		대졸 이상	-	-			-	-
	근로시간(시간)		-2.536***	0.683			-2.196**	0.799
	이혼 한부모 여부		-7.239	9.846			-2.483	7.808
가구 및 요일 특성	소득 범주	0~100만원			33.505*	15.338	23.810	16.668
		100~200만원			12.027	8.860	9.370	8.079
		200~300만원			-	-	-	-
		300~500만원			-16.298*	8.087	-13.836 †	7.738
		500만원 이상			-35.146** *	9.494	-28.343**	9.470
	가구원수				-1.112	3.101	-1.144	3.170
	미취학 자녀 유무				98.677***	17.007	89.030***	15.732
	주거 점유 형태	자가			-	-	-	-
		전세			-13.280†	7.997	-15.924*	7.401
		기타			1.005	9.951	-4.510	8.427
	조사일 (주말=1, 주중=0)				-1.154	6.114	-6.560	6.876
	지역	서울			8.325	8.472	10.282	7.799
		광역시			-	-	-	-
		도			3.075	7.495	1.705	6.706
GEE Fit Criteria	QIC	441.90		446.36		457.33		
	QICu	430.00		434.00		441.00		
분석에 이용한 시간일지 수			42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2) 수면시간에 대한 분석

두 번째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수면시간’을 종속 변수로 삼아 분석했다. 우선 한부모(본인)의 특성만을 분석한 [모형 I]에 따르면,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일 때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짧았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은 짧았다.

가구 및 요일특성만을 분석한 [모형 II]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범주에 따라서는 0~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의 수면시간이 (기준변수로 삼은 200~300만원 미만 범주의 응답자들에 비해) 긴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길었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이들의 수면시간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일에 따라서는 주중에 비해 주말의 수면시간이 길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에 사는 한부모 또는 서울 또는 광역시 이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한부모의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 본인의 특성과 가구 및 요일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 III]의 분석결과는 [모형 I]과 [모형 II]를 통해 도출된 계수값의 크기나 유의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1세 높을수록 수면시간은 2.4분가량 짧았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 값은 아니지만, 계수값의 크기로 보아 낮은 정도의 교육정도 범주에 속해 있을 경우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가능성도 엿보였다. 근로시간이 1시간 길수록 수면시간은 10.8분씩 짧았으며, 조사일에 따라서는 주말의 수면시간이 평일에 비해 39.8분 정도 길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한부모에 비해 서울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수면시간이 32분가량 더 짧았다. 한부모의 성별, 한부모가 된 사유, 가구소득, 미취학 자녀유무, 주거 점유 형태 등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수면시간의 경우 연령이나 근로시간, 조사일에는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이나 가구소득 등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면시간에 대한 분석의 경우 앞선 미성년자녀의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수면의 경우 (개인별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성격이 강하며, 돌봄과는 달리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탓에 본인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많다면 이들을 돌보기 위해 잠을 설치거나 수면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어린 만큼 일찍 잠자리에 들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

능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모형의 설명력도 낮고(모형의 R^2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수면시간(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Ⅰ] 개인특성만 고려		[모형 Ⅱ] 가구특성만 고려		[모형 Ⅲ] 개인 및 가구 고려	
			β	$S.E.$	β	$S.E.$	β	$S.E.$
상수항			617.525***	57.272	432.005***	26.349	601.866***	60.295
본인 특성	성별		10.257	13.642			-0.038	13.951
	연령		-1.775	1.120			-2.360*	1.046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9.193	23.681			25.503	23.729
		고졸	14.025	16.661			17.510	16.875
		전문대졸	18.342	17.652			16.504	17.527
		대졸 이상	-	-			-	-
	근로시간(시간)		-13.871***	1.551			-10.840***	1.764
	이혼 한부모 여부		-17.322	17.163			-11.022	16.766
가구 및 요일 특성	소득 범주	0~100만원		43.441†	23.577	5.772	25.410	
		100~200만원		28.157†	16.718	16.126	16.403	
		200~300만원		-	-	-	-	
		300~500만원		6.893	16.605	22.726	16.391	
		500만원 이상		6.719	21.950	26.195	22.239	
	가구원수			11.517†	6.722	7.418	6.328	
	미취학 자녀 유무			43.495*	20.780	25.332	20.580	
	주거 점유 형태	자가		-	-	-	-	
		전세		0.167	18.351	-0.540	18.715	
		기타		-14.436	14.184	-15.611	13.742	
	조사일 (주말=1, 주중=0)			70.350***	9.391	39.826***	8.877	
	지역	서울		-44.585†	23.580	-36.327	25.139	
		광역시		-	-	-	-	
		도		-33.705*	14.027	-31.696*	13.275	
GEE Fit Criteria		QIC	439.38	446.24		460.61		
		QICu	430.00	434.00		441.00		
분석에 이용한 시간일지 수			42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분석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탁, 청소, 정리 등과 같은 가사노동 시간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녕과 원활한 발달을 위해 적정수준의 가사노동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이 필수적이다. 가사노동시간 또한 혼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한 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표 4>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모의 '가사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아 동일한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I]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이와 함께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및 요일특성만 고려한 [모형 II]에서는 300만원 이상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소득 범주에 들어 있는 응답자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았으며, 주중과 비교해 주말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 본인의 특성과 가구 및 요일 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 III]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과 비교하면 남성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19.6분 정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대졸 이상의 응답자들에 비해 가사노동에 43.2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1시간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은 9.8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0~100만원 미만 또는 100~200만원 미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이 20분가량 가사노동시간이 짧았다. 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명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에 7.1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한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20분가량 가사노동에 시간을 덜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일에 따라서는 주중에 비해 주말의 가사노동시간이 13분가량 짧았다.

〈표 4〉 ‘가사노동시간(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개인특성만 고려		가구특성만 고려		개인 및 가구 고려	
			β	<i>S.E.</i>	β	<i>S.E.</i>	β	<i>S.E.</i>
	상수항		102.010***	21.397	71.215***	13.519	135.737***	24.717
본인 특성		성별	-23.941***	6.297			-19.610**	6.683
		연령	-0.034	0.412			-0.009	0.421
	교육 수준	고졸 미만	31.635**	10.572			43.236***	11.273
		고졸	0.308	7.269			3.330	7.867
		전문대졸	5.475	8.098			4.868	7.994
		대졸 이상	-	-			-	-
	근로시간(시간)		-8.418***	0.724			-9.752***	0.820
	이혼 한부모 여부		5.868	6.950			2.507	7.308
가구 및 요일 특성	소득 범주	0~100만원			13.235	12.842	-19.130†	10.800
		100~200만원			-4.378	10.343	-15.364†	8.230
		200~300만원			-	-	-	-
		300~500만원			-28.257**	10.132	-12.697	8.614
		500만원 이상			-33.390*	15.494	-9.519	13.106
	가구원수				-1.109	4.023	-7.091*	3.121
	미취학 자녀 유무				-0.650	10.675	-19.615*	8.466
	주거 점유 형태	자가			-	-	-	-
		전세			8.286	10.170	10.512	7.530
		기타			0.936	9.127	6.236	7.175
	조사일 (주말=1, 주중=0)				19.390**	6.561	-12.644*	6.104
	지역	서울			-15.906	10.932	-11.793	10.228
		광역시			-	-	-	-
		도			6.360	7.691	9.622	6.206
GEE Fit Criteria	QIC		431.95		439.59		443.80	
	QICu		430.00		434.00		441.00	
분석에 이용한 시간일지 수			42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 식사를 위한 시간(식사준비 및 식사, 설거지 시간)에 대한 분석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식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집계된 식사를 위한 시간⁹⁾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 보았다.

9) 본 연구에서 식사를 위한 시간은 본 조사의 식사하기(121), 식사준비(411), 설거지·식후정리(413)를 위한 시간의 합으로 정의한다.

〈표 5〉 ‘식사관련 시간(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개인특성만 고려		가구특성만 고려		개인 및 가구 고려	
			β	$S.E.$	β	$S.E.$	β	$S.E.$
상수항			165.252***	24.941	128.158***	15.182	171.607***	28.270
본인 특성	성별		-15.052*	7.616			-11.122	7.662
	연령		0.379	0.467			0.375	0.487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576	13.622			4.672	13.094
		고졸	-6.177	9.055			-8.252	8.420
		전문대졸	-13.934	10.498			-14.839	9.687
		대졸 이상	-	-			-	-
	근로시간(시간)		-6.886***	0.793			-7.564***	0.876
	이혼 한부모 여부		-0.248	9.406			-2.821	9.022
	가구 및 요일 특성	소득 범주	0~100만원					0.592
100~200만원			8.984		10.877	3.310		9.562
200~300만원			-		-	-		-
300~500만원			-25.955*		11.848	-16.068		10.218
500만원 이상			-27.755*		13.709	-13.991		12.182
가구원수		5.678	4.291		1.667	3.616		
미취학 자녀 유무		-11.335	9.569		-22.664**	8.489		
주거 점유 형태		자가	-		-	-		-
		전세	-17.084†		9.556	-12.865		8.505
		기타	3.059		9.622	7.620		8.226
조사일(주말=1, 주중=0)		17.761***	5.232		-5.482	5.109		
지역		서울	2.244		14.726	5.089		13.641
		광역시	-		-	-		-
		도	5.706		7.628	9.228		6.851
GEE Fit Criteria	QIC	437.32		443.18		453.95		
	QICu	430.00		434.00		441.00		
분석에 이용한 시간일지 수			42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본인(한부모)의 특성만을 고려한 [모형 I]의 결과에서는 여성과 비교하면 남성의 식사관련 시간이 짧았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식사를 위해 할애한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 따르면, 300~500만원 및 500만원 이상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범주에 속한 이들이 식사와 관련한 시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거주자에 비해 전세의 형태

로 사는 이들의 식사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평일보다는 주말에 식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 본인의 특성과 함께 가구 및 요일 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 III]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식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 짧았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이 1시간 길수록 식사를 위한 시간에는 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닌 가운데 상당히 낮은 정도의 가구소득(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해 있는 이들의 식사를 위한 시간이 짧았다.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한부모에 비해 식사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22.7분 더 적었다. 한편, 해당 모형에서는 주말을 나타내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이나 지역 등의 변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3. 한부모가족 부, 모의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 본인 및 가족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시간활용 양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시간부족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에서 한부모의 자녀돌봄, 수면, 가사노동시간, 식사와 관련한 시간을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6>은 4점 척도로 측정한 시간부족감¹³⁾을 종속변수로 삼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본인(한부모)의 특성만을 고려한 [모형 I]의 결과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부모 본인의 특성과 함께 가구 및 요일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 III]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라면 연령이 1세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이 0.033점

13)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시간부족감을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으로 구분된다. 이는 엄밀히 말해 연속형 변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순위형 변수에 더 가까운만큼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 분석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과 같은 변수가 연속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부표 1>에 제시한 순위형 로짓 분석결과와 계수값의 크기나 유의도가 유사한 점, 순서형 로짓 분석의 경우 한계효과와 같이 해석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시간부족감에 분석해 보았으며, 순위형 로짓 방식으로 시간부족감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낮았다. 근로시간이 한 시간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에 속한 이들의 시간부족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함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시간부족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 유무, 주거 점유 형태, 조사일, 지역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6〉 ‘시간부족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I] 개인특성만 고려		[모형 II] 가구특성만 고려		[모형 III] 개인 및 가구 고려			
			β	$S.E.$	β	$S.E.$	β	$S.E.$		
상수항			4.244***	0.445	2.862***	0.248	4.181***	0.533		
본인 특성	성별		-0.156	0.129			-0.164	0.130		
	연령		-0.031**	0.008			-0.033***	0.009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062	0.223			-0.073	0.251		
		고졸	0.133	0.164			0.174	0.164		
		전문대졸	-0.100	0.178			-0.094	0.173		
		대졸 이상	-	-			-	-		
	근로시간(시간)		0.000*	0.000			0.000*	0.000		
	이혼 한부모 여부		0.151	0.154			0.199	0.154		
가구 및 요일 특성	소득 범주	0~100만원					-0.080	0.226	-0.129	0.226
		100~200만원					-0.129	0.175	-0.138	0.173
		200~300만원					-	-	-	-
		300~500만원					-0.125	0.185	0.005	0.174
		500만원 이상					-0.511*	0.203	-0.367†	0.194
	가구원수						0.081	0.066	0.113†	0.062
	미취학 자녀 유무						0.021	0.192	-0.063	0.174
	주거 점유 형태	자가					-	-	-	-
		전세					0.059	0.167	-0.024	0.165
		기타					-0.034	0.149	-0.161	0.147
	조사일(주말=1, 주중=0)						0.000	0.000	0.000	0.000
	지역	서울					-0.098	0.249	-0.094	0.226
		광역시					-	-	-	-
		도					-0.040	0.128	-0.066	0.123
GEE Fit Criteria		QIC	439.94	452.05	464.98					
		QICu	430.00	434.00	441.00					
분석에 이용한 시간일지 수			42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한부모의 시간 사용에 있어 근로시간은 수면시간이나 자녀돌봄시간 및 식사관련 시간을 줄이게 하는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성별에 따라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나 식사관련 시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요일(주말, 주중)과 관련해서는 한부모의 미성년자녀 돌봄시간의 경우 주중과 주말 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면시간은 주중에 비해 주말이 길었다. 어린 자녀(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자연스레 돌봄에 할애한 시간이 길었으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은 짧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부족감과 관련해서도 근로시간의 영향력이 상당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의 정도는 낮았다.

자녀돌봄의 방식이나 질적 측면 등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은 한부모 본인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이는 연령이 (막내)자녀의 연령 그 자체 또는 자녀의 연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긴 근로시간은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을 줄이는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나 가구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교육수준 또는 소득수준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이 자녀돌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녀돌봄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사적 돌봄자원이나 (사)교육시설 등의 이용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돌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외)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 자녀를 직접 돌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집의 특성이나 위생과 관련한 생각, 가사를 위한 가전제품의 활용정도 등은 자료의 한계로 고려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존 분석만으로도 가사노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한부모가 가사노동에 시간을 덜 들이는 것으로 분석된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와의 역할분담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사를 위한 시간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식사를 덜 한다거나 식사의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예컨대 단순히 식사를 빨리하기 때문에 식사 및 식사를 위한 시간이 짧을 수 있으며, 반조리식품(밀키트)이나 배달음식의 활용은 직접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해 식사를 위한 시간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식사와 관련한 시간을 분석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

다. 분석을 통해 (분석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은 차이가 있으나) 남성의 식사관련 시간이 짧다거나 낮은 정도의 가구소득에 속한 이들이 식사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부실한 식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식사를 위한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VI. 결론 및 함의

2023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35.0만 가구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통계청, 2023)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한부모 가족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가족 형태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이나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고, 시간활용을 통해 이들의 일상을 살핀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의 시간활용 양상과 그들이 느끼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구주)의 자녀돌봄시간, 수면시간, 가사노동 시간 및 식사관련 시간 사용양상과 시간부족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한부모의 시간 사용에 있어 근로시간은 수면시간이나 자녀돌봄시간 및 식사관련 시간을 줄이게 하는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자료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나 식사관련 시간 사용의 성별 차이도 확인되었다. 수면시간은 주중에 비해 주말이 길었다. 어린 자녀(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자연스레 돌봄에 할애한 시간이 길었으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은 짧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부족감과 관련해서도 근로시간의 영향력이 상당했으며, 여정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부족감의 정도는 낮았다.

자녀돌봄의 방식이나 질적 측면은 고려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은 (막내)자녀의 연령 또는 한부모 본인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교육수준 또는 소득수준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이 자녀돌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녀돌봄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사적 돌봄자원이나 (사) 교육시설의 이용가능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 자녀의 돌봄에 다른 가족((외)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일 가능성이 높아, 자녀를 본인이 직접 돌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가사노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이밖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한부모가 가사노동에 시간을 덜 들이는 것으로 분석된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와의 역할분담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는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가사노동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집의 특성이나 위생과 관련한 생각, 가사를 위한 가전제품의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석을 통해 식사를 위한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 무조건적으로 식사를 덜 한다거나 식사에 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식사 속도가 빨라서 식사 및 식사를 위한 시간이 짧을 수 있으며, 반조리식품(밀키트)이나 배달음식의 활용은 직접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해 식사를 위한 시간을 현저히 줄어들게 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식사와 관련한 시간에 대한 분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분석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은 차이가 있으나) 남성이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가 식사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실한 식사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집단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식사를 위한 시간이 짧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한부모의 경우 양부모와 비교했을 때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적정근로시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 중 급작스러운 일이나 연장근로 등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와 그 부담을 나눌 수 없는 한부모는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 방안도 보다 세심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와 역할 분담이 불가능한 한부모는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자녀돌봄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의 고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식사와 관련해 한부모의 넉넉하지 못한 정도의 시간투입은 이들의 자녀의 식사의 질이 부실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셋째, 투입된 시간의 양만으로는 가사활동의 질까지 고려가 어렵지만, 한부모,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원활한 가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들의 일상을 위한 정책(서비스 및 시간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¹⁴⁾

본 연구는 한부모의 일상(시간 사용)에 대해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다.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부모의 시간 사용 양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피고자 한 본 연구는 한부모의 삶을 한층 더 객관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가사, 돌봄, 식사 등의 경우 다른 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배호중 외, 2023). 특히 돌봄이나 가정관리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주활동으로 삼을 것인지, 또는 해당 행동을 특정한 행동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활동으로 응답한 시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단순히 시간의 양에 대한 분석만으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사와 관련된 활동이나 가사노동의 경우 이를 위한 가전도구 등의 활용이나 사적서비스 등의 활용에 따라 투입된 시간이나 해당 행동의 질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아울러 시간의 총량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시간대, 시간의 분포 등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까지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세부적인 시간활용(예를 들어, 식사와 관련한 시간의 경우에도 식사하기, 식사준비, 설거지·식후정리 시간을 구분, 가사의 경우에도 청소 세탁 등 보다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한부모의 삶을 한층 더 깊이 있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한부모이나 각각의 활동에 있어 함께하는 이들

14) 물론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획일화된 잣대로 시간 사용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다만 생활시간 차이가 개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울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만약 시간 사용이 특정 집단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배호중·양은모, 2024).

이나 자녀의 시간활용 양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족인 만큼 각 구성원의 행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자료구성 및 모형설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측면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까지도 함께 담아낼 수 있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란·주재선·김난주·최진희(2015). 생활시간조사를 통해본 가족시간 변화 추이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오남(2004).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85-118.
- 김외숙(2015). “가족자원경영학에서의 시간사용연구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3-28.
- 김외숙·박은정(2018).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2권 제3호. 1-19.
- 김외숙·조희금·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파주: 교문사.
- 김유심(2010).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빈곤층 여성한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영적안녕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28권. 187-218.
-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배주현·성경(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재엽·양세정(201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1-22.
- 김정희(2024).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28권 제3호. 17-27.
- 김진욱(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1호. 101-125.
- 노경혜(2021).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본 한부모 시간빈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노영희·김상인(2016). “한부모의 자녀양육어려움, 고용지위,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제24권 제2호. 167-185.
-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父子) 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제1권 제2호. 135-174.
- 문화진(2023). “한부모의 우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제3호. 61-81.
- 박건(2016). 기혼여성의 재량시간 활용과 시간관리 실태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미진·김은지·정수연·오욱찬(2022).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과 젠더 격차

-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복순(2008).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한국한부모가정학. 제1권 제1호. 41-73.
-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151-181.
- 배호중·정가원·박미진·선보영·성경(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최철환·배호중(2021).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 결정요인 분석”. 여성연구. 제111권. 97-138.
- 성미애(2020). “청소년 자녀가 있는 남성 한부모의 어려움 관련 변인”.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8권 제1호. 1-15.
- 성정현(2022).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경험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8호. 527-541.
- 송치호·여유진(2010).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미국과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223-255.
- 양은모·성경·배호중(2023). “조부모와의 동거가 유자녀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및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돌봄, 수면, 가장관리 시간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제28권 제4호. 25-53.
- 여성가족부(2025). ‘유형별서비스-한부모가족’. <https://www.mogef.go.kr/>에서 2025.2.16. 인출.
- 오성은·김한성(2020). “사회적 배제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207-226.
- 이경희·김근주(2018). 시간 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래혁(2023). “코로나 19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부정적 생활변화가 우울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한부모가족 유형별 차이”. 보건과복지. 제25권 제1호. 67-93.
- 이이나·이창배(2023). “한부모가족 양육자의 차별 피해 경험의 영향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제2호. 221-246.
- 이혜정·장수정·김병인·백경훈(2021). “한부모가족 빈곤위험의 젠더격차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제48권 제2호. 103-129.

- 장혜원·최하영(2021). “학령기 자녀를 둔 남성한부모의 어려움-초등학생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68권 제4호. 35-67.
- 정수정(2018). *아동생활시간 잠재계층유형의 영향요인과 발달결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이운·전미양(2023). “복지급여와 정책학습: 한부모에게 지급된 준보편적 현금급여와 공공부조 경험 비교”.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2호. 87-125.
- 조보배(2022).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12권. 121-146.
-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 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39-151.
- 최하영·민혜영(2020). “여성 한부모의 종사상지위와 빈곤지위 결정요인 분석-다차원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7권 제3호. 97-128.
-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가이드라인(시계열 연계 중심으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23).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I2에서 2025.2.11. 인출.
- Bianchi, S. M.(2011). Family change and time allocation in American famil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8(1), 21-44.
- Lee, S., McHale, S. M., Crouter, A. C., Kelly, E. L., Buxton, O. M., & Almeida, D. M.(2017). Perceived time adequacy improves daily well-being: day-to-day linkages and the effects of a workplace intervention. *Community, Work & Family*, 20(5), 500-522.
- Maffesolli, M., & Lefebvre, H.(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Abstract

An Analysis of Time Use and Time Deficiency Perception Among Single Mothers and Fathers

Eunmo Yang* · Hojoong Bae**

Single parents with underage children often bear sole responsibility for both childcare and earning a livelihood. This dual burden frequently leads to constraints in time use and a heightened perception of time scarcity. This study aims to objectively analyze the time use patterns of single parents and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of time deficiency. Utilizing data from the 2019 Korean Time Use Survey, the analysis focuses on household heads in single-parent families living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hildcare, sleep, housework, and meals, along with their perceived lack of time.

The results show that, on average, single parents spent 42.9 minutes per day on childcare, 489.8 minutes (approximately 8.2 hours) on sleep, and 71.0 minutes on housework. The analysis identifies working hours as a key factor that significantly reduces the time available for sleep, childcare, housework, and meals.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in time spent on housework and meals. Furthermore, working hours were found to be a major determinant of perceived time scarcity; all else being equal, men and older individuals reported a lower degree of time deficien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aimed at alleviating the structural time constraints faced by single-parent families and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The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here contributes to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single parents' time use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responsive and impactful policy measures.

Keywords : Childcare hours, Housework hours, Single parents, Sleep duration, Time Use Survey

* First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부표 1〉 ‘시간부족감’에 대한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Ⅰ] 개인특성만 고려			[모형 Ⅱ] 가구특성만 고려			[모형 Ⅲ] 개인 및 가구 고려		
			β	<i>S.E.</i>	<i>Wald</i> χ^2	β	<i>S.E.</i>	<i>Wald</i> χ^2	β	<i>S.E.</i>	<i>Wald</i> χ^2
	상수항4		2.04**	0.74	7.53	-0.78*	0.38	4.34	1.70†	0.88	3.76
	상수항3		3.48***	0.76	21.21	0.58	0.38	2.35	3.18***	0.89	12.85
	상수항2		5.98***	0.80	55.86	2.97***	0.43	48.09	5.73***	0.93	38.37
본인 특성	성별		-0.47*	0.21	4.86				-0.50*	0.23	4.71
	연령		-0.07***	0.01	22.41				-0.07***	0.02	22.67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14	0.36	0.16				-0.28	0.40	0.49
		고졸	0.25	0.25	1.03				0.27	0.27	1.04
		전문대졸	-0.33	0.27	1.47				-0.32	0.28	1.32
		대졸 이상	-	-	-				-	-	-
	근로시간(시간)		0.07**	0.02	7.44				0.08**	0.03	7.65
	이혼 한부모 여부		0.30	0.24	1.65				0.40†	0.24	2.71
가구 및 요일 특성	소득 범주	0~100				-0.17	0.30	0.33	0.05	0.33	0.02
		100~200				-0.35	0.25	1.92	-0.31	0.26	1.36
		200~300				-	-	-	-	-	-
		300~500				-0.32	0.27	1.38	-0.15	0.29	0.27
		500만원 ↑				-1.07**	0.34	9.70	-0.78*	0.37	4.44
	가구원수					0.17†	0.10	2.85	0.28**	0.11	6.75
	미취학 자녀 유무					0.04	0.27	0.02	-0.12	0.29	0.17
	주거 점유 형태	자가				-	-	-	-	-	-
		전세				0.16	0.25	0.42	-0.10	0.26	0.14
		기타				-0.05	0.22	0.04	-0.33	0.23	2.06
	조사일(주말=1)					-0.30	0.18	2.62	0.11	0.21	0.28
	지역	서울				-0.09	0.35	0.07	-0.26	0.36	0.55
		광역시				-	-	-	-	-	-
		도				-0.01	0.20	0.00	-0.18	0.20	0.78
Likelihood Ratio			51.23***			1.24			3.84***		
Score			48.60***			0.0321			0.1463		
Wald			47.16***			0.006			0.1082		
시간일지 수			42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